

북

Books

누가 훔쳤나, 모나리자의 미소를

스캔들 미술사

하비 래클린 지음·서남희 옮김



1911년 8월 23일, 언제나 처럼 루브르미술관에서 거작들을 모사하던 프랑스 화가 루이 베로는 늘상 걸려 있던 작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경비를 찾아 나섰다. 그림이 도난당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미술관 사람들은 박물관 공식 사진사가 작품을 찍기 위해 잠시 그림을 가져간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액자와 보호 유리판이 계단에 버려진 것을 발견한 박물관 관계자들은 경악했고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워지게 되었다. 오랜 수사 끝에 그림은 1913년 12월 31일에야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걸릴 수 있었다.

세기의 도난 사건의 주인공인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술한 사연을 간직한 채 신비한 미소를 짓고 지금도 전 세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모나리자', '게르니카' 등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26편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흥미로운 책이 출간됐다.

세계적인 출판사 펜귄북스를 통해 출판돼 많은 화제를 모았던 '스캔들 미술사'는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돼 인기를 모은 '루시의 뼈들', 신성한 둘째,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뇌' 등을 쓴 하비 래클린이 다양한 자료들을 섭렵해 엮은 책이다.

미술 뿐 아니라 음악과 역사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으로 책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특히 각 그림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

고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 흥미를 돋운다.

저자는 불우했던 작가 앙리 드 블루즈 로트렉의 '불랑루즈에서'를 통해 '신체 폼플렉스'를 가졌던 한 예술가가 세상과 어떻게 조우하는지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 정치, 특정 사건, 종교적 신념, 도덕,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한다. 하지만 로트렉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개인적 느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빨간 풍차'라는 뜻의 클럽 '불랑루즈'의 친구들은 로트렉의 상냥한 영혼을 중요시했지, 외로에



한차례 도난 사건으로 세계를 놀라워지게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인 '모나리자'.

책은 그밖에 렘브란트의 '야경'과 '의사 니콜라 에스 빌프의 해부학 강의', 요한 조파니의 '우피치 미술관',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등에 얹힌 이야기도 들려준다.

각 작품에 얹힌 이야기는 한편의 로맨스 소설이 되기도 하고, 추리소설이 되기도 하는 등 긴박하고 재미있게 읽힌다.

〈리베르·1만6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게르니카' '야경' 등

그림 속에 숨겨진

26편의 이야기 갤러리

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자신에게 위안을 줬던 서커스 단원들, 댄서, 매춘부들이 항상 자리잡고 있었다. 로트렉은 어떤 식이든 타이르거나, 꾸짖거나, 도덕적 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매혹적인 표현하며 동질감을 드러낸다.

초상화는 그림 속 주인공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르다.

한스 홀바인의 '밀라노 공작부인, 덴마크의 크리스티나'를 통해서는 왕의 배필을 결정짓는 초상화의 비밀을 들려주고, 벤자민 월슨이 그린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는 미국 독립혁명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일생을 풀어낸다.

〈리베르·1만6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든 철학자는 혁명가였다

황광우 지음



'정인'을 기억하는가? 광주 출신 황광우는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옛목록을 이고 가는 사람들'의 저서를펴내, 1980~90년 부조리한 현실에 맞선 저자이다.

그의 책은 대학 신입생 필독서가 될 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그의 새책 '철학 콘서트2'는 지난 2006년 네이버 이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힌 '철학 콘서트'의 두 번째 이야기다.

맹자의 혁명론에서 뉴턴의 만유인력까지 세상을

바꾼 사상가 10인의 위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이론 중심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철학을 이해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또 기존의 철학 범위를 뛰어넘는 인물들을 함께 다룬 철학의 지평을 넓혔다. 갈릴레이와 뉴턴, 세종과 호메로스 등 다른 철학교양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이 다수 등장해 흥미를 돋운다.

그는 "지적 혁명을 일으킨 사상가들을 통해 철학은 그저 세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상을 크게 바꾸어왔음"을 이야기한다.

또 모든 철학자는 혁명가였음을 강조한다. 철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을 극복하면서 태어나는 것이다'이다.

같은 과정을 극적으로 소개한다.

교회의 권위 아래 목숨을 걸었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진리를 위해 승승 플리온을 부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신하들의 불 같은 반대를 피해 요양지에서 남몰래 홀을 개발했던 세종이 그들이다. 또 이런 부정(negotiation)의 정신은 저 멀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거기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철학이란 책상물림의 공상이나 쓸데없는 지식 자랑이 아닌, 때론 목숨을 건 진리 탐구"라고 말한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주어진 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2천원〉

/오봉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자씨의 유쾌한 논어’

생생하고 구체적 지혜



‘논어’를 번역하거나 해설한 책은 현재 유통되는 것 만도 280여 종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권위적인 해석은 비쁜 일상을 살아가는 깊은 울림을 주지 못했다는 평이다.

소장 동양철학자 신정근 교수는 ‘공자씨의 유쾌한 논어’는 ‘논어’의 메시지를 절제하게 현대적 상황에 맞게 변용했다. 원문을 평이하게 번역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원문의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논어’를 처음 만나는 독자나 제대로 읽기에 실패한 독자는 이 책에서 ‘논어’가 주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2만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

철학 콘서트 2

황광우 지음

‘정인’을 기억하는가? 광주 출신 황광우는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옛목록을 이고 가는 사람들’의 저서를펴내, 1980~90년 부조리한 현실에 맞선 저자이다.

그의 책은 대학 신입생 필독서가 될 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그의 새책 '철학 콘서트2'는 지난 2006년 네이버 이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힌 '철학 콘서트'의 두 번째 이야기다.

맹자의 혁명론에서 뉴턴의 만유인력까지 세상을 바꾼 사상가 10인의 위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이론 중심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철학을 이해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또 기존의 철학 범위를 뛰어넘는 인물들을 함께 다룬 철학의 지평을 넓혔다. 갈릴레이와 뉴턴, 세종과 호메로스 등 다른 철학교양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이 다수 등장해 흥미를 돋운다.

그는 “지적 혁명을 일으킨 사상가들을 통해 철학은 그저 세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상을 크게 바꾸어왔음”을 이야기한다.

또 모든 철학자는 혁명가였음을 강조한다. 철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을 극복하면서 태어나는 것이다’이다.

같은 과정을 극적으로 소개한다.

교회의 권위 아래 목숨을 걸었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진리를 위해 승승 플리온을 부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신하들의 불 같은 반대를 피해 요양지에서 남몰래 홀을 개발했던 세종이 그들이다. 또 이런 부정(negotiation)의 정신은 저 멀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거기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철학이란 책상물림의 공상이나 쓸데없는 지식 자랑이 아닌, 때론 목숨을 건 진리 탐구”라고 말한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주어진 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2천원〉

/오봉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민공인증개사

■ 헌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미하 및 금 매물 종가 전문)

공시지가+건물과표12억5천평 매가7억5천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복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8억 아파트1300세 대상가매가2억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4억 8천평 매가3억 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공시지가+건물과표6억 5천평 매가3억 8천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페인트 95p 공시 지가3억 5천평 매가2억 4천

▶ 30m 도로 접

감정가3억 8천평 매가2억

▶ 잠성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동

▶ 2층 사무실

30억 빌딩 급매

▶ 대 200p 건 450p

▶ 8억원 2350만원 응 13억포함

♣ 공시지가 이하급 매물 접수 환영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상가·건물매매

수완지구 종합상권

수완지구 아파트

수완지구 상가

수완지구 풍차

수완지구 풍차